

## 조선 후기 醫案 『輕寶新編』 연구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종욱\*

### Study of *Gyeongbosinpyeon*, a Late Joseon Medical Records

Jeon Jongwook\*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

**Objectives**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healing processes employed in the traditional age and discover the unique features found in the Korean Medicine through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and the aspects and results of treatments as recorded in *Gyeongbosinpyeon*, a historical text thought to have been authored by a regional doctor active in Joseon during the mid- to late-19th century.

**Methods** : A table is created to view all of the total of 141 medical records introduced in the *Gyeongbosinpyeon*, and 7 categories were created to each contain 2 to 3 medical records that have special images. The paper provides their translation texts along with the original texts, and analyzed their medical and social significances by comparing each medical record.

**Results** : The clinical competence displayed by the doctor who had worked in Joseon during the 19th century was surprisingly high, and it seems its values are worthy of dissemination when compared with *Yeogsimanpil* that has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There is a great significance in how the principle of holistic treatments, the fundamental aspect of Joseon's medical study, was adhered. Additionally, the parts that show the historical text's author's medical activities an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re also worthy of attention.

**Conclusions** : Korean medicine possesses a remarkable text called *Donguibogam*, but clinical behaviors' successes are not guaranteed solely with textual knowledge. It can be witnessed that such texts of authority and such medical records that have recorded actual activities complement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Joseon's study of medicine.

**Key Words** : Medical Records, Joseon Medicine, Symptom Treatment, Holistic Treatment, Disease of Phlegm

## I. 서론

조선에서 『東醫寶鑑』이라는 걸출한 의서의 출현이 미친 영향은 여러 분야에서 고찰되었다. 다만 그 실제적 임상적 양상이 어떠한가를 醫師의 언어로 직접 표현된 醫案의 존재는 매우 제한적이다.<sup>1)</sup> 周命新의 『醫門寶鑑』, 張泰慶의 『愚岑雜著』, 殷壽龍의 『吞吐集』, 그리고 최근의 李壽祺(또는 李壽龜)의 『歷試漫筆』 등은 그런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분량이나 정밀도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東醫寶鑑』의 텍스트 지식을 체득하고 소화한 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구현하는 직접적 의료 현장의 장면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체 언어와 함께 소상히 그려진 때문이다.<sup>2)</sup> 비단 위에 거론된 醫案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의 기록물의 정황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또 하나의 醫案 양식의 書冊인 『輕寶新編』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輕寶新編』은 한의학연구원의 원문이미지 제공서비스<sup>3)</sup>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바, 이 책은 표지 포함 총 80쪽의 분량으로 141건의 임상경험이 필사로 기록된 자료이다.

먼저 ‘輕寶’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지니고 다니기 편한 보배’라고 한다. 轉하여 學識을 비

유한다고도 했다.<sup>4)</sup> 사전적 의미 그대로 쓰인 것인지 또는 저자와 관련된 號 등의 명칭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안상우의 간략 해제에는 “환자 사례를 날짜나 일련번호 없이 ‘一’로 표시하고 병문별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병증별로 모아 기록해 놓은 것 같다”고 하였고, 특히 환자 중에서 長興 李在國이 실명으로 거론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므로 혹시 호남 지방에서 의원노릇을 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sup>5)</sup>

이에 기존의 『歷試漫筆』, 『醫門寶鑑』, 『愚岑雜著』, 『吞吐集』 등의 계보를 이을 『輕寶新編』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파악한 다음 그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저술 시기

『輕寶新編』의 표지에 해당하는 곳에 壬戌 六月 日 이라는 날짜 기록이 있다(Fig. 1.).

壬戌년은 근년부터 따져서 1922년, 1862년, 1802년, 1742년, 1682년, 1622년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본문에 『東醫寶鑑』의 病門이 참고로 다수 나오는 것으로 보아 1622년 이후로 보이고, 태수(太守)와 같은 관직명이 나오는 것을 보면 1922년보다는 위로 올라간다. 또한 『東醫寶鑑』에 없던 처방인데 『濟衆新編』(1799)이나 『廣濟秘笈』(1790)에서 俗方으로 처음 나타나는 ‘鷄膏’가 등장하고, ‘唐瘡’<sup>6)</sup>과

\* Corresponding Author : Jeon Jongwook.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 Jeonju, Republic of Korea.

Tel : +82-63-270-5903. Fax : +82-63-270-5905.

Email : lovejnj@gmail.com, lovejnj@jbnu.ac.kr

Received(1 Febr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Accepted(16 February 2017)

- 1) 신동원 외 3인. 역사만필: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천기. 과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5-7
- 2) 이기복. 의안(醫案)으로 살펴보는 조선후기의 의학 : 실행 과정에서 보이는 의학지식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 pp. 433-436
- 3) 원문이미지는 <http://jisik.kiom.re.kr/>의 『輕寶新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輕寶新編. [cited at 2017 Jan 5] Available from : URL :

- 4) 네이버국어사전 [cited at 2017 Jan 12] Available from : URL : [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8%BC%95%E5%AF%B6](http://krdic.naver.com/search.nhn?dic_where=krdic&query=%E8%BC%95%E5%AF%B6)
- 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cited at 2017 Jan 5] Available from : URL :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Result.jsp>.
- 6) 唐瘡은 『東醫寶鑑』, 『醫宗金鑑』 등에는 楊梅瘡, 天泡瘡으로 주체어로 제시되어 있고 당창이라는 이름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19세기 저작인 『林園經濟志』에 일본에서 간행된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하여 ‘楊梅瘡의 俗名이 唐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輕寶新編』은 이처럼 19세기 이후의 俗名을 채용하여 주체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林園經濟志 仁濟志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仁濟志4. 楊梅瘡. [cited

같은 병명이 제목으로 나타나며, 또 드물게 한글표기가 두어 곳<sup>7)</sup> 드러나 있는데(Fig. 2.),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19세기 이후의 저술로 좀 더 범위를 좁혀볼 수 있다.

Fig. 1. Cover page of Gyeongboshinpyeon and 'imsul(壬戌)'



Fig. 2. 'Dangchang(唐瘡)' 'Lead' appears on the first line to right



## 2. 전체 구성과 특징

『輕寶新編』 전체 구성은 다음의 Table 1로 정리해두었다. 아울러 본고가 대상으로 한 141개 의안 전체에 대한 요약 정보를 Table 2에 압축하여 수록하였다.

맨 앞에 오는 2개의 의안은 眼疾, 赤痢에 관한 것이고, 다음 둘은 精滑과 勞後犯房 등 성인남자의 질병인데, 별다른 표기 없이 두었다(미분류). 5번째 부터는 一婦人으로 시작되듯이 명백한 婦科에 해당하며 총 45개 의안이 이어진다. 부과 다음에는 '風癩神方'이라는 소제목에 달고 7개의 의안이 등장한다. 이것은 『輕寶新編』 저자의 癩疾에 대한 치료경험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小兒門'이라는 소제목 표기와 함께 소아과 질환으로 6개의 의안이 간단하게 나온 뒤, 『輕寶新編』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인남자의 醫案이 시작된다. 총 63개의 의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은 '中男少年病神方'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고, 성인 남자의 질병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 차례는 노인들의 질병 치

at 2017 Jan 2]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123\\_Z\\_004&DataName=%E5%BD%A2%E8%AD%89&id=KIOM\\_A123\\_4\\_025\\_0010&HLWORD=%E5%94%90%E7%98%A1%2C%E7%95%B6%E7%98%A1%2C%E7%95%B6%E8%84%B9%2C%E6%BA%8F%E5%97%86%2C%E5%80%98%E5%97%86](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123_Z_004&DataName=%E5%BD%A2%E8%AD%89&id=KIOM_A123_4_025_0010&HLWORD=%E5%94%90%E7%98%A1%2C%E7%95%B6%E7%98%A1%2C%E7%95%B6%E8%84%B9%2C%E6%BA%8F%E5%97%86%2C%E5%80%98%E5%97%86).  
 7) 唐瘡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水銀 등 중금속을 재료로 제련하는 과정에 '납'과 '바빔'이라는 한글이 나타난다(잡방). (Fig. 2. 참조.)

Table 1. Composition of *Gyeongboshinpyeon* and its contents

분류	원문표기	갯수	비고
미분류	없음	4案	醫案
부과	없음	45案	醫案
간질	風癇神方	7案	醫案
소아과	小兒門	6案	醫案
성인남자	中男少年病神方	63案	醫案
노인과	老人諸症神方	16案	醫案
영사 복용법	服靈砂法	39法	병증에 따른 靈砂 복용법
민간 영사복용법	時俗靈砂服法	12法	靈砂 복용의 추가내용
잡방	없음	32方	요긴한 처방 모음
기타	達磨和尚知病人生死		疾病 占

료 부분인데 ‘老人諸症神方’이란 제목 표기와 함께 총 16개가 제시되며, 이로써 『輕寶新編』의 본문에 해당하는 의안은 마무리된다.

醫案 다음에는 각종 질병의 치료에 광물성 약물인 靈砂를 복용하는 방법, 곧 ‘靈砂服法’이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 민간에서 통용되는 방법이었는지 궁금증을 일으키며, 雜方에 나오는 32개 처방들도 상당수가 기존의 방식에서 언급되지 않은 저자만의 임상 처방임을 짐작케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를 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고에서는 醫案의 성격을 다루는데 집중하고자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輕寶新編』은 序文이나 跋文이 따로 없고 目次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필사된 醫案은 모두 一人, 一少年, 一婦人, 一室女, 一乳兒, 一老人이라는 형식으로 시작되므로 醫案의 각 단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性別, 나이 등도 한 눈에 들어온다(Fig. 3.). 드물게 一太守, 一儒, 一秀才, 一自農, 一野人처럼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一虛人, 浦人之妻, 一四十餘歲人처럼 환자의 상태나 정보를 좀 더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輕寶新編』의 저자는 텍스트 내에 나왔던 처방을 다시 거론할 필요가 있을 때에 ‘方見上’, ‘方見上婦人門’과 같이 수시로 인용하여 책의 유기적 용도를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이 자신의 기억을 적어놓은 것과는 달리, 책의 형태로 사

Fig. 3. First page of *Gyeongboshinpyeon* and ‘一人’



전에 그 구성과 편집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증거로 볼만하다. 출간을 염두에 둔 초벌작업 단계일 가능성이 짐쳐지는 대목이다. 이런 점은 『歷試漫筆』 등의 간행되지 않고 필사로 전해진 여타 醫案의 경

우와 닮아있다. 또한 醫案 본문에서 치료 처방이 언급될 때 매우 빈번하게 『東醫寶鑑』의 어느 편에 보인다는 附記를 의식적으로 해두고 있는데(例: 方見消渴), 141개 醫案 중 약 40개에서 나타난다. 이는 『輕寶新編』 저자가 『東醫寶鑑』을 바탕으로 근거가 확실한 진료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輕寶新編』의 의안이 『東醫寶鑑』 식 입상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담보해 준다고 할 수 있다. 『輕寶新編』은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東醫寶鑑』을 바탕으로 오랜 치료 경험을 쌓은 위에서 임상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름의 경험적 체득으로 긴요한 부분을 잘 요약하면서 執證 시의 주요 포인트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이점에서도 역시 『輕寶新編』은 『歷試漫筆』과 매우 흡사하다. 『歷試漫筆』은 동의보감의 실전기라는 副題를 붙였을 정도로 그 권위가 가깝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sup> 후반부의 몇몇 독특한 치료법이나 잡방은 지역에서 통용되는 의약이거나 본인이 다양한 환자를 접하면서 스스로 터득한 내용을 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과 의안의 관계를 견주어 봄으로써 조선의 의학지식과 의료현장에서 작동방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輕寶新編』의 총 141개의 의안은 분량 면에서도 짧은 것에서부터 상당히 긴 내용의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질병의 경과와 처방의 종류가 다수 나타나면서 필사분량이 1면을 차지하는 의안도 20여 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의안의 개수는 부인과 질환과 중남소년질환에서 특히 많고 상대적으로 소아, 노년의 경우는 적다. 부인, 소아, 노인은 따로 그룹을 정하여 편집되어 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병증의 종류는 상한, 간질, 우울, 복창, 부종, 열병, 기병, 설사, 이질, 변비 등을 넓게 아우르고 있다. 婦科를 예로 보면, 병증에 妊婦 滿朔脫腸, 産後發熱, 瘧疾, 腹脹症, 癰疾, 痰壅, 頭痛, 便秘, 憂鬱, 小腹痛, 感氣, 泄瀉, 陰部搔癢, 虛勞, 水土不伏 등이

폭넓게 출현하며, 그 치료법은 佛手散, 補中益氣湯, 柴胡四物湯, 芎辛導痰湯, 草果平胃散, 枳殼挫散, 桔梗枳殼湯, 淸肝湯, 補虛湯, 六和湯, 羌活勝濕湯, 鷄膏 등으로 주로 약 처방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2).

『輕寶新編』 전편에 걸쳐 약 처방 이외의 치료법으로 침 사용은 2회, 뜸 사용은 1회로 나타났다. 침은 痰結을 터뜨리는 용도와 腎膜을 제거하는 초기치료의 의미로 사용(노-3)되었고, 뜸은 商陸을 사용한 뜸(남-19)이었다. 저자가 아닌 다른 의사가 關元穴에 뜸을 뜬 경우가 언급(남-31)되었는데 그 치료는 부작용만 일으킨 잘못된 시술로 평가되었다. 요컨대 『輕寶新編』에서의 침과 뜸 치료는 전체적으로 탕약 치료의 보조적인 용도에 그쳤다.

뒷부분에 부기된 雜方과 靈靈砂法의 경우처럼 지역에서의 활용법을 첨가, 변용한 것 또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은 임상에서의 임기응변으로 얻어진 경험적 산물로 자연스럽게 수록되었을 터이다. 이에 본 논고는 『輕寶新編』 醫案에 집중하고자 한다.

아래에 『輕寶新編』 141개의 의안을 모두 요약 정리한 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각 특징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기로 한다.

8) 실제로 『歷試漫筆』의 140여개 의안은 『東醫寶鑑』 목차의 카테고리 대에 대해 녹아들어가는 구조이다. 이는 『東醫寶鑑』과 『歷試漫筆』의 매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의 3인. 역시만필: 조선어의 이수구의 동의보감 실전기. 과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 726-735.)

Table 2. Summary for the whole 141 medical records on *Gyeongboshinpyeon*

분류/ 연번	연령/ 환자	주요 病證	주요 處治/處方	비고/ 동의보감병문
미-1		眼疾	牛黃	1~4는 미분류
미-2		赤痢	牛黃	
미-3	男	精滑, 昏睡	六味湯加牡蠣/益補滋腎丸	方見眼門
미-4	男	過勞後犯房	雙和湯	사망 方見虛門
부-1	妊婦	滿朔 脫腸	佛手散	부과 45례
부-2	妊婦	표전 胃虛	補中益氣湯去人蔘, 加山藥, 升麻	方見內傷
부-3	産後	産後發熱	柴胡四物湯	
부-4		産後發熱 雜症	六君子湯	方見痰門
부-5	産後	産後頭痛 眼睛俱出	芎辛導痰湯加清血藥	方見頭門
부-6		痰涎逆上 譫語狂言	六君子湯에 降火, 行氣藥	瘴鄉
부-7		處女 寒瘧	草果平胃散	方見瘧門
부-8		會厭紅 咽喉痛	加味四七湯	方見咽喉
부-9	女兒	兩手掌 深紅	芍藥湯	方見口門
부-10		夏月吐瀉症	六和湯	
부-11		婦人 腹脹症	枳殼挫散	加味平胃散 (方見積聚)으로 사망 方見脹門
부-12		女人 癩疾	青州白圓子	2사례 추가
부-13		女人 痰頭痛	加味六君子湯	
부-14		婦人 便秘	桔梗枳殼湯	1사례 추가 方見胸門
부-15	老人	老夫人 瘧疾	柴胡二陳湯加人蔘	
부-16		婦人 飢餓 頭痛	加味補中益氣湯/升陽散火湯	

부-17		婦人憂鬱, 泄瀉, 謔語	補中益氣湯加人蔘, 青皮/清肝湯加梔子仁	
부-18		大病 後 氣虛 咳逆	六君子湯	
부-19		感氣新差 陰部腫氣疼痛	龍膽瀉肝湯/補中益氣湯/清肝湯/四物湯 等	6가지 처방 연속치료 方見前陰 方見五臟
부-20		婦人小腹痛 浮腫 元氣大敗	清肝湯, 通順散	方見五臟
부-21		婦人 頭痛 身痛 惡寒發熱, 熱入血室	四物湯加柴胡, 黃芩, 沙蔘, 半夏, 甘草	
부-22		婦人 哀鬱 元氣大敗 胸下凝結	補中益氣湯加便香附, 川芎, 蒼朮	
부-23		婦人鬱氣 感氣 房勞 胸膈逆上 天突部位 鬱結	柴胡四物湯 便香附, 川芎, 蒼朮	
부-24	老人	老夫人 瘴鄉 內傷 元氣虛弱 痢疾	芍藥甘草湯加當歸, 白朮, 木香, 檳榔	檳榔 木香 中 하나만 사용
부-25	老人	老夫人 泄瀉症	鷄膏	瘴鄉 水土不伏
부-26	産後	産後惡露不下 頭痛 兩脚痛 飲食不進 元氣虛極	補虛湯 四物湯加桃仁, 紅花, 蘇木	虛實兼症
부-27		婦人內傷症 頭疼 身痛 四肢踈臥 虛汗如流水 盜汗	桂枝湯	
부-28		夏月 泄瀉 痢疾 元氣大敗 臍腹有塊 大痛	六和湯	暑塊
부-29		한여름 瘧疾	蔘歸養榮湯	
부-30		夏月 氣虛 飲食不進	柴胡四物湯加白芷, 乾葛 補中益氣湯加半夏/蔘歸養榮湯	통증유무에 따라 고대 복용
부-31		食後 常腹隱痛 胸腹滯症 病症難言	茯苓半夏湯	方見吐門
부-32	寡婦	隔間 氣急 項強 不能坐臥	羌活勝濕湯加胡蔘/疎風活血湯去防己, 加胡蔘/六君子湯加桔梗, 枳殼, 乾薑, 胡蔘	
부-33		陰部搔癢 刺痛	加味歸脾湯	憂鬱開喻宣心
부-34		熱鬱 齒痛	加味涼隔散	瘴鄉

부-35	産後	産後發熱 惡寒頭痛 泄瀉 惡露不下 氣色欲絶	四物湯加柴胡,桃仁,紅花,蘇葉,黃芩	
부-36	妊婦	妊娠4月 淋疾, 下腹膨脹 陰門重墜	澤瀉湯/桑灰水 赤小豆粥 白扁豆散/紫蘇飲子/四物湯加豬苓,澤瀉, 檳榔,木香,燈心	方見子門 方見半産
부-37	妊婦	妊娠10月 腹痛, 脇脹, 脇 痛, 陰門重墜	蔥白湯	40리 떨어진 곳 에 원격 약방문
부-38		感氣 頭額痛 식은땀	桂枝湯加白芷/加味二四湯加桂枝	
부-39	産前産後	産前感氣産後不愈 腹痛 泄瀉 飲食不消	柴胡四物湯加桃仁,紅花/四物湯加桃仁, 紅花/補虛湯加檳榔,木香	
부-40	80세	老人 感氣	陶氏補中益氣湯加黃芪,白朮, 山藥,蒼 朮,半夏/補中益氣湯加 枳殼,桔梗,神曲, 麥芽	금년 감기는 濕 痰이 특징
부-41	産後	婦人 産後 感氣, 産後 下 血, 嘔吐	抵聖湯/補虛湯	다른 의사 처방 의 도움
부-42	61세	女人 氣虛無力, 脹滿 痛 症 逆上	헛담/平胃散加山查肉,神曲,麥芽	
부-43	産後	婦人 産後 泄瀉, 腹中 逆 氣 咽喉上衝, 不能坐臥	六君子湯	痰壅咳逆
부-44	79여세	兩日瘧	四物六君子湯加人蔘/ 鷄膏(加半夏)	
부-45	40여세 妊婦	多産 脾胃虛弱, 妊娠中 瘧疾	四物湯/益氣湯加半夏	
간-1	婦人	産後 數月後 癩疾	六君子湯	風癩 7례
간-2	女人	癩症	滋陰健脾湯	
간-3	小兒	瘵攣 卒倒 癩疾	六君子湯加半夏,南星,人蔘	
간-4	少年	昏絶 人事不省 癩疾	六君子湯加半夏,南星,胡蔘	
간-5	18세兒	癩症 1年	六君子湯加半夏(或南星),胡蔘	
간-6	秀才	癩症 數年	滋陰健脾湯加 人蔘	
간-7	40여세	최근 발병, 하루에 무수 히 발작	六君子湯加人蔘	

소-1	小兒		疎風活血湯去防己	小兒 6례
소-2	9세	더위에 상하고 비를 맞아 感氣, 頭痛, 腹痛, 小便澁, 兩脚冷	蒼朮白虎湯/平胃散合五苓散	
소-3	小兒	脚痛이 小腹痛으로 옮겨 가 石門穴 왼쪽이 종기발 생 元氣衰敗	淸肝湯, 通順煎	부-20과 동일증 상 方見五臟
소-4	젖먹이	驚搐, 氣塞	牛黃抱龍丸/洗肝散	
소-5	儒	飽食 후 沐浴, 화를 내며 달린 뒤 喘促症	正傳加味二陳湯	소아에 해당되 지 않음
소-6	小兒	봄 여름 4~5개월 동안 泄瀉	溫六散	辰砂益元散 배 제
남-1	少年	感風寒, 頭痛眩暈, 頭面右 邊多汗	陶氏補中益氣湯	
남-2	少年	感冒暑濕, 惡寒煩燥, 譫妄, 昏睡	淸熱導痰湯加羌活, 防風/ 補中益氣湯加人蔘, 附子	瘴鄉 方見痰門
남-3	太守	下腹痛上衝, 危篤	木香破氣散加高良薑	嶺南小邑 方見氣
남-4	太守	下體 冷寒, 淋疾	益本滋腎丸(知母, 黃柏)	眞熱假寒 方見眼門
남-5	太守	瘡疾 黃疸 복합	柴平湯加 茵蔯, 梔子, 澤瀉	方見瘡門
남-6	少年	紅疹 후 3~4년 매밤마다 큰그릇으로 물을 켜고 양 손의 열이 팔꿈치로 옮겨 감	升揚散火湯	胃中伏熱
남-7	男子	會厭症	加味四物湯	大虛症
남-8		寒症으로 左膝부위 浮腫, 팔 부위 纏腰火丹, 環跳 부위 刺痛, 元氣衰敗	鎮痛散/疎風活血湯去桂枝加防己	약제가감 비술 方見風門 方見風
남-9		잇몸에 異物이 발생	자연 회복	
남-10	19세	오랜 腹痛, 子正의 惡寒 發熱, 面紅	正傳加味二陳湯	上下焦 同時 影 向 痰飲病機 方見痰門
남-11	少年	女色過度 眼疾 腎膜	益本滋腎丸 加當歸	腎膜 제거 鍼法 병행

남-12		腹脹症	消脹丸/補中益氣湯	교대 복용
남-13	野人	腹脹症	黑丑 만물가루/補中益氣湯	교대 복용
남-14		感氣新差 重感風寒, 小便閉	禹功散/陶氏補中益氣湯	八正散 무효 方見回春
남-15		瘧疾. 間日에도 足跟酸疼	桂枝羌活湯加知母, 黃柏	腎經의 열
남-16		中風, 四肢不遂 不能言語, 大小便 받아냄	加味茯苓湯(痰入心包)	아들이 아버지 병을 전함
남-17		鬱火, 腹痛, 脇痛, 頭痛, 惡寒發熱, 躁動, 全身冷寒	加味六鬱湯/淸肝湯	다른 의사와 반대 처방
남-18		左便頭痛, 胃氣大虛, 사물이 돌로 보임	四物湯 加人蔘	血虛 肝虛
남-19		頰腫 潰爛	商陸 灸法/升麻胃風湯	뜸 치료 병행
남-20		鬱火, 耳痛, 검은진물	蔓荊子散 加香附子	腎臟 아닌 肝膽 울체
남-21		感氣, 코피, 譫語	膠藥丸/陶氏生地芩蓮湯加胡蔘	外感內傷 兼症의 치료 方見血門
남-22	20세	思慮病 譫語, 妄行, 精神昏憒	寧志化痰湯/養血清心湯	二方見神門
남-23	少年	憂鬱, 狂言, 譫語, 發狂	寧志化痰湯/六鬱湯/養血清心湯	方見神門 方見積聚 方見神門
남-24	農民	手足麻痺, 刺痛, 全身搔癢, 浮腫	二陳湯加蒼朮, 白朮, 炮乾薑, 附子, 桃仁, 紅花	胃中濕痰
남-25		兩手足小瘡, 肘膝부위 파급, 發熱疼痛	앞의 二陳湯加減方去乾薑, 附子, 加羌活, 連翹	앞과 같음 方見皮部麻木
남-26		心脾虛弱 痰飲	補中益氣湯加胡蔘	밥 먹는 때를 어기면 안 됨
남-27		滯症에 飲食傷, 感氣, 右腋積聚刺痛	行氣香蘇散/正傳加味二陳湯	
남-28		房室過度에 飲食傷, 感氣, 泄瀉, 赤尿	柴胡四物湯去人蔘, 加山藥	
남-29	守令 (太守)	열이 심하고 병이 위중, 咳逆, 便閉	大柴胡湯加栝蒌, 大黃, 芒硝	諸醫皆走
남-30	少年	過勞後犯房, 感氣, 昏絶, 元氣大敗	陶氏導赤各半湯去人蔘, 加胡蔘	內傷勞熱에 깊은 부위 치료
남-31	少年	夢精 昏 全身 惡寒, 胸膈 壅滯	柴胡四物湯/十味和解放/三山湯合四物湯/蠅蔥散/龍膽瀉肝湯/淸心蓮子飲	독서로 고심하는 사람의 心熱

				과 肝熱 關元 뜸 약화 方見消渴
남-32		下腹部 속 陰莖 縮入, 평소 鬱火症	六鬱湯	
남-33		臍腹痛, 심한 盜汗	五積散加吳茱萸	腎經
남-34		冷氣에 맞아 小腹大痛 大小便閉	當歸四逆湯加木香, 檳榔	氣滯 方見寒門
남-35		겨울 齒痛, 耳痛 極甚. 小便 黃赤.	寫胃湯	胃中濕熱과 外感風寒  겸함 方見齒門
남-36		忿怒 耳聾	補中益氣湯去人蔘, 加沙蔘	당제인 龍膽湯 無效, 益氣湯사 용후見效
남-37		房勞後 寒氣, 痛症 極甚 面色紅	柴胡四物湯加知母, 黃柏	手足少陰 腎經
남-38		感氣 疼痛, 泄瀉, 便血	柴苓湯加桃仁, 當歸	
남-39	未婚男子	脾臟虛症, 飲食不進, 메마르고 元氣困苦	蔘苓白朮散去人蔘, 加沙蔘. 大山芋丸加胡蔘	
남-40		中氣虛弱, 夏月 大小便淋瀝不通. 午後甚.	補中益氣湯去人蔘, 加沙蔘, 赤茯苓, 澤瀉, 木通, 檳榔, 木香	血虛症에 四物 湯보다 補中益 氣湯 선택 氣能生血
남-41		가을 瘧疾. 無惡寒, 多汗, 頭額痛症	驅邪湯加白芷, 知母/ 驅邪湯加山藥, 白朮	
남-42	少年	房勞後 극심한 통증, 臥病	痰病에 房勞傷이 추가된 것, 痰藥으로 회복	女色病이 아닌 지 名醫에게 물 음
남-43	李在國	食後 嘔吐症, 마르고 아 위어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음	茯苓半夏湯/正傳加味二陳湯	장흥 이재국 方見痰飲
남-44		小便澁, 大便不通, 下腹部 隱痛, 肛門脫腸	八正散/益元散 加木香, 檳榔, 茴香	
남-45		頭部 隱痛, 嘔吐, 大小便 閉	半夏天麻湯	痰病의 上下焦 病機 설명
남-46		右耳痛과 右頭痛	귓속의 膿이 빠져나오면서 회복	자연치료
남-47	本人	鬱火로 인한 耳聾症	마음을 열고 鬱症을 풀어 냄	痰火와 元氣虛 弱이 원인

남-48	本人	倒飽症, 쉽게 배고픈 증, 죽과 미음수삼 년, 무른 음식만 육칠 년.腰痛	담백한 蔬菜음식 위주로 脾胃를 조리 하니 倒飽症과 腰痛 회복	脾臟의 濕氣 가 주원인
남-49		飲食 攝生 잘못, 鬱症, 兩肩臂痛과 兩脅肋痛, 鳩尾穴 부위 통증	桔梗枳殼湯 加香附子, 川芎, 蒼朮	충분히 치료하지 못함
남-50		겨울철 房勞 후 感氣에 걸려 斑點이 생김	柴胡四物湯 無效, 荊防敗毒散 完治	금년 감기의 특 징은 濕溫
남-51		허약한 사람이 鬱火로 인한 병	六鬱湯 加胡蔘	
남-52		咽喉痛	荊防敗毒散 加 薄荷, 黃芩, 半夏. 桔梗 2倍	
남-53		鬱症, 右脅肩痛, 咳嗽	正傳加味二陳湯에 香附子 2배	
남-54	李在國	평소 痰症. 몸조리를 잘 못하여 嘔吐症, 病勢 危極, 腹鳴, 浮腫	正傳加味二陳湯/白朮半夏湯/芎夏湯/六君子湯加豬苓, 澤瀉, 厚朴, 神曲, 車前子 無效/ 補中益氣湯 水蔘	方見食痺
남-55		鬱火病, 肛門 안쪽 통증 극심	아침에 清肝湯加 便香附/ 저녁에 瀉白湯 加連翹	교대 복용 方見肝門 方見大腸
남-56		새벽 咳嗽症 극심	正傳加味二陳湯 瀉白散이 當劑이나 胃虛하여쓰지 못함	食積胃熱이 肺로 간 것
남-57	60세	눈동자 眉稜骨통 야간 극심. 사물이 셋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은 흐릿하여 보이지 않음	選奇湯 加白芷, 白朮, 山藥/ 選奇湯 去白朮, 白芷, 山藥 加 柴胡, 當歸, 黃柏/柴胡湯加白芷/四物龍膽湯加白芷, 半夏/補益湯/沖和養胃湯去人蔘, 加益智仁	어느 선에서 약을 멈춤
남-58		腹脹症	黑丑 만물가루/補中湯	교대 복용
남-59		臍腹痛과 晨泄, 腹脹症	五積散加吳茱萸 (三神湯 無效)	
남-60		胸腹간에 流注疼痛, 臍腹 右側 硬結부위가 동통의 시작점	正傳加味二陳湯 加行氣藥, 靑皮	
남-61		좌우의 環跳穴 부위와 무릎 痛症 往來. 좌우眼黑 睛疼痛, 白膜	撥雲散合夏枯草散 加荊芥. 益本滋腎丸/ 疎風活血湯	益湯과 疏湯 아침저녁 교대 복용
남-62	60세	腰脚痛, 足冷如水, 膿血痢, 大小便秘澁	芍藥湯/ 芍藥甘草湯加當歸, 白朮, 桂心, 檳榔, 乾	快差 方見腹部

			薑,木香/同方 加檳榔, 赤茯苓,桂心,乾薑,木香/五積散 加吳茱萸,桂皮,乾薑	
남-63	少年	兩日瘧	六君子湯/ 補中益氣湯	
노-1	70세	兩日瘧	四物六君子湯加人蔘	老人諸症 16례
노-2		兩日瘧	四物六君子湯	鄉村
노-3		右胸部 痰結, 泄瀉	加味二陳湯/補中益氣湯, 加半夏, 升麻, 生薑/ 개고기/平胃散加山查,神曲/ 正傳加味二陳湯加青皮,白芥子	고름은 鍼으로 제거
노-4		黃疸	補中益氣湯加澤瀉,豬苓,檳榔, 木香	
노-5	81세	宿患淋疾, 便秘	桂枝湯/補氣治濕 湯劑	
노-6		肩臂痛, 盜汗	六君子湯去人蔘,加山藥,石菖蒲/黃土鷄膏	
노-7	90세	妄佞, 舌黃苔, 煩熱, 재채기, 腰痛	補中益氣湯加柴胡,人蔘,生薑, 附子	
노-8		感氣, 兩脚에서 冷氣逆冷	補中益氣湯合桂枝羌活湯/ 疎風活血湯去黃柏/ 加味補中益氣湯	
노-9		四肢의 팔꿈치와 무릎이 疼痛. 運動不能	清肝湯	肝經 火 기운 方見五臟
노-10		飲食不進, 元氣衰弱. 午後發熱 煩悶	柴陷湯/六君子湯	方見嘔吐門
노-11		心胸痛 나은 후 재발 食飲全廢	草果平胃散	
노-12		熱瘧	加減平胃散	瘴鄉 方見瘧門
노-13		夏月 赤白痢	貸金飲子加 清血利小便藥材	
노-14		過飲, 尿血	芎夏湯 加白朮,甘草	
노-15		痰飲, 胸脇痛	清心蓮子飲	
노-16		血尿		
총141				사례추가 143

### 3. 『輕寶新編』 속 醫案의 주요 특징

『輕寶新編』의 醫案에는 환자의 증상의 執證, 치료 처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病機의 해석이 『東醫寶鑑』의 기준을 따르면서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다. 이는 비교적 일찍 알려진 周命新의 『醫門寶鑑』, 趙廷俊의 『及幼方』, 그리고 최근에 발굴된 조선 후기 의안 『歷試漫筆』과도 공통되는 온 조선 의안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9)</sup> 『歷試漫筆』, 『愚岑雜著』, 『呑吐集』, 『東醫壽世保元』을 고방에 대한 태도와 활용양상을 기준으로 비교한 이기복의 연구<sup>10)</sup>는 『歷試漫筆』을 『東醫寶鑑』의 치료 원칙을 주종으로 따른다는 점에서 '古方을 證驗한' 형태의 의안으로 보았는데, 『輕寶新編』 역시 『醫門寶鑑』, 『歷試漫筆』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는 『輕寶新編』 의안 개수도 비슷하면서(130개) 다양한 질병과 정교한 진료를 선보이는 본격 의안 『歷試漫筆』과 『輕寶新編』을 개략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그 성격을 유추해 보려한다.

본고 집필 중에 『歷試漫筆』과 『輕寶新編』 이 두 의안의 내용상 공통점이 자주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선 의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이고 견고한 전일적 의학과 진료 태도, 질병과 건강에 대한 기본 인식 등이 그 基層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본론의 서술로 같음하고자 한다. 한편 의료 외적인 영역에서, 환자가 치료 과정 중에 불신이 생겨 다른 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상황이나(남-23), 환자의 보호자

와 病理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소-6), 환자가 가난하여 인삼이 든 약을 충분히 쓰지 못했다는 탄식(남-54)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당시 사회적 맥락과 상호관계를 여실히 드러낸다.<sup>11)</sup> 또한 『歷試漫筆』에서 저자 李壽龜 본인의 질병을 두 꼭지에 걸쳐 할애하여 인간적 고민을 짊어 토로한 바 있는데,<sup>12)</sup> 『輕寶新編』 역시 두 꼭지에 걸쳐 자기의 질병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다(남-47, 48). 의사로서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의 고민의 토로가 담긴 꼭지의 존재는 기억해 둘 만한 공통점이다. 의사 역시 환자가 될 때가 있기에, 자신의 병에 대한 예민한 관찰과 치료 시도는 환자의 입장과 함께 병의 진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歷試漫筆』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점은 맥에 대한 태도이다. 『歷試漫筆』에서는 환자 진료에서 맥을 가장 우선시했으며, 外症과 脈症이 상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맥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고 실천하였다.<sup>13)</sup> 그러나 『輕寶新編』에서는 맥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맥을 거론하는 때는 애매한 맥으로 병을 판단하려다가 치료를 그르친 경우를 경계할 때다(남-16). 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주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차이점은 환자에 대한 實名과 實職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歷試漫筆』은 저자가 御醫까지 오른 전문 의관으로서 의사의 신분 의 차이와 함께 방문하는 환자의 신분까지도 달라진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歷試漫筆』에서도 환자가 平民일 경우는 성별과 나이 정도만 언급하고 말았고, 政丞과 같은 벼슬아치들은 姓과 함께 직책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9) 周命新의 『醫門寶鑑』, 趙廷俊의 『及幼方』은 醫說을 예시할 목적으로 의학 텍스트에 삽입된 의안이며, 『歷試漫筆』은 李壽龜의 본격 의안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이기복, 의안(醫案)으로 살펴보는 조선후기의 의학 : 실행과정에서 보이는 의학지식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 pp.434-435. ; 하기태 외 3인, 의문보감에 수록된 주명신 의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 13(1). pp.20-22.)

10) 이기복은 이상 4개의 의안에 대해 각각 '고방을 증험하다', '고방에 자재하다', '성방을 탈피하다', '자기 의학을 실천하다' 라고 성격 규정하면서 『東醫寶鑑』과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 점점 고방을 벗어난 창조적 분위기를 전달하려 논구하였다. 이기복, 의안(醫案)으로 살펴보는 조선후기의 의학 : 실행과정에서 보이는 의학지식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 pp.436-452.

11) 醫案에서 보이는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려는 시도 또한 『歷試漫筆』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꽃매, 역시만필의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 후기 여성의 삶과 질병. 의사학. 2015. 24(2). pp.518-525.)

12) 이는 『歷試漫筆』과 『輕寶新編』, 『醫門寶鑑』 모두가 갖는 공통점이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필: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천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488-496.)

13) 『歷試漫筆』은 130개 의안에서 맥진법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풍부하게 맥을 설명하고 있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필: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천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655-679.)

뿐이다.<sup>14)</sup> 고을 수령은 모두 姓과 地域名을 달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輕寶新編』 역시 지방 守令인 太守의 질병을 치료한 경우가 총 4회 나오므로(남-3,4,5,29) 이에 대해서는 다시금 공통점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이제 본고는 『輕寶新編』 질병 치료에 있어서의 주요 특징을 7가지로 요약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醫案을 3~4개 정도 추려서 번역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 1) 補法과 瀉法の 교대 처방

『輕寶新編』 저자의 처방 운용은 복잡적이고 미세한 조절을 선보인다. 임상에게서 용량과 복용기간, 가감 약재를 정밀하게 선택하고 처방하는 것이 기본 임무이기는 하나, 텍스트에 기재된 의약정보를 실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추상적 의학 지식의 구조와 눈앞에 존재하는 환자의 실상을 연결하여 핵심적 고리를 看取하는 숙련된 기술이 요청된다. 『輕寶新編』 중에서 이런 순간을 드러내는 두드러진 세 꼭지를 뽑아보았다. 그 실 내용은 補藥과 瀉藥을 아침저녁으로 교대로 처방하는 것이다. 환자의 虛實과 병의 진행에 밀착해서 세밀한 처방 운용을 하는 장면이다.

남-12는 腹脹症에 消脹丸과 補中益氣湯을 교대로 복용하여 입맛을 죽이지 않으면서 복창을 치료하고 있다. 남-13 역시 黑丑 만물가루와 補中益氣湯을 4~5차례 교대복용하고 있다. 消脹丸과 黑丑 만물가루의 선택은 아마도 환자의 신분과 경제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 저자는 결론을 내리면서 虛弱人에게는 中氣를 살리는 과정에서 실사를 조금만 하게 해야 하고 補中益氣湯에는 반드시 인삼을 써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극심한 虛症에서는 이런 교대 처방의 방법도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남-61은 다리와 무릎의 통증과 眼球痛症(白膜 포함)을 다루는 내용이다. 撥雲散合夏枯草散을 써서

眼球痛症과 白膜을 치료했는데, 腎膜이 조금 남아 있고 손가락의 肢節痛이 생겼다. 이것은 風疾로 인한 肢節痛인데, 風毒이 위쪽으로 공격하여 안구통증과 예막이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상하초에 동시에 병이 생겨난 것은 肝腎의 虛熱이 동반되므로, 益本滋腎丸과 疎風活血湯을 아침저녁으로 교대복용하게 하여 병을 치료하였다.

남-12 어떤 사람이 복창증을 앓아 소창환을 3~4일 쓰니 몇 차례 설사하고 복창증이 줄어들고 입맛 역시 조금 줄었다. 곧 보중익기탕 3~4첩을 복용하여 입맛이 회복되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시 소창환 3~4회 복용하니 복창이 조금 줄고 음식도 줄었다. 다시 보중익기탕 3~4첩 복용하여 음식이 회복되기를 기준 삼았다. 이처럼 교대로 약을 복용하기를 4~5차례 하고나자 창증이 비로소 치료되고 이어서 조리하는 약을 주니 평상으로 회복하였다.<sup>15)</sup>

남-13 어떤 야인이 복창증을 앓았는데 흑축 만물가루 1돈으로 설사시키고 완전히 내보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몇 차례 설사한 뒤 창증은 좀 줄었는데 음식도 따라 줄어, 이어서 보중익기탕 2~3첩을 주었더니 음식 먹는 것이 좀 나아졌다. 이처럼 사이사이 약을 복용하기를 4~5차례 하니

15) 의안의 原文은 모두 原本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필사된 환자의 해독과 국문 번역은 모두 필자가 수행하였다. 또한 원문이미지의 면수(총 80면 중에서 00/80으로)를 표기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이하 모두 같다. 원문이미지 32/80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輕寶新編. [cited at 2017 Jan 12] Available from : URL :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07\\_Z\\_001&DataName=%E8%BC%95%E5%AF%B6%E6%96%B0%E7%B7%A8&id=KIOM\\_A007\\_4\\_001\\_0002&HLWORD=%E8%BC%95%E5%AF%B6%E6%96%B0%E7%B7%A8](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07_Z_001&DataName=%E8%BC%95%E5%AF%B6%E6%96%B0%E7%B7%A8&id=KIOM_A007_4_001_0002&HLWORD=%E8%BC%95%E5%AF%B6%E6%96%B0%E7%B7%A8). “一人 腹症 消脹丸 三四日 而數次瀉下 腹脹消減 口味稍減 即服 補益湯 三四貼 口味復故爲度 更用消脹丸 三四服 又腹脹稍減 飲食稍減 又服補益湯 三四貼 飲食復故爲度 如是間服四五次 腹症始醫 因進調攝之劑而平復”

14) 『歷試漫筆』에서는 실제로 성과 버슬을 붙여서 洪相國, 崔載嶺 등으로 나오는데, 그 시기에 그 버슬을 산 사람을 역으로 추적하여 성명을 찾아내는 것일 뿐이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필: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277~282.)

병이 나왔다.

대저 증상은 모두 비허에 기인하므로 증창 치료처방은 역시 증기를 보하면서 병증을 치료하는 일을 겸해야 한다. 약력이 전일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증증을 흠어내는 약을 쓰고 그 다음 증기를 보하는 약을 바로 **이어서 한 번은 사해주고 한 번은 보해 주는데**, 설사를 살펴 증증이 줄어드는 것을 가늠하고 입맛을 살펴 위기가 허약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극히 조심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사람의 노소와 허실을 살펴 치료해야 한다. 만일 허증이 극심하다면 이러한 처방은 쓰지 말아야 한다.<sup>16)</sup>

남-61 어떤 사람이 좌우의 다리 환도혈 부위와 무릎 부위에 통증이 왔다갔다 하며 아팠다. 족통이 조금 고치니 좌우의 눈에 검은 동자가 갑자기 아프고 백막이 흑정을 모두 가려 오직 눈동자만 남겨둔 상태였다. 발운산에 하고초산을 합한 약에 형개 1돈을 더한 것 3첩을 복용하니, 눈이 아픈 것과 백막이 가린 것은 모두 나았는데 눈의 흑정에 좁쌀크기 만한 백예가 두 개 있었고 좌우의 손가락이 다시 아팠다. 이어서 **익본자신환** 1제와 소풍활혈탕 20첩을 아침저녁으로 복용케 하였다.

대저 풍질로 인한 지절통은 풍독이 위쪽을 공격하여 예막이 된다. 또한 (이 병은) 간신의 허열이 동반되었다.<sup>17)</sup>

## 2)脾胃가 痰病의 원인

16) 원문이미지 32/80면 “一野人 脹症 黑丑末一錢 隨瀉加減 快瀉爲度 數次泄瀉 脹症稍減 飲食亦成(減) 因進補益湯 二三貼 飲食稍勝 如是間服 四五次而愈”

17) 원문이미지 51/80면 “一人左右足 環跳 膝腕 去來相痛 足痛稍止而左右眼黑睛碎疼 白膜遍遮黑睛 惟瞳子不蔽 撥雲散 合夏枯草散 加荊芥一錢 服三貼 眼痛白膜并差 而瞳下黑睛 有粟米大 二白翳 左足指節更痛 繼進**益本滋腎丸** 一劑 **疎風活血湯** 二十貼 朝暮服 蓋以風疾肢節痛 風毒上攻爲腎膜也 兼肝腎虛熱也”

『輕寶新編』 저자는 상당수의 병은 痰의 문제가 근본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몸의 건강의 중심은脾胃에 있는데,脾胃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곧 痰이 발생하고 그 痰이 과생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치료에 있어서도 痰의 문제는 中焦,脾胃에 그 뿌리가 있으므로, 드러난 表症을 다스린다하더라도 근본인脾胃의 기운을 되살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곧바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았다. 부-13은 頭痛을 치료했더니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아픈데 腹痛, 足痛, 九竅痛 등증을 잡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痰病은 表에 드러난 증상을 쫓아다니느라 헤매지 말고, 모름지기 中焦脾胃를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또한 痰이 제거되어도 비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곧 재발하며,脾胃는 또한 人蔘 黃芪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痰病 치료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6은 痰症이 진행되어 譫語狂言, 動作狂妄까지 간 케이스다. 다른 의사들도 그 괴이한 증상을 놓고 蛔病이니 癰疾이니 분분하였으나, 저자는 痰症임을 확신하고 六君子湯과 淸熱利氣藥으로 완치시켰다. 남-16은 中風으로 대소변을 받아내는 환자인데 사정을 물어보니 급격하게 온 병이 아니라 약간의 통증이 점점 진행되어 重症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저자는 바로 이 병은 진짜 중풍이 아니라 痰入心包症으로 판단, 즉시 痰 치료로 방향을 바꾸어 병을 낫게 했다. 극적인 임상 사례다. 四肢를 못 쓰고, 大小便을 받아내며, 말도 할 수 없는, 걸로 보기에 영락없는 중풍 환자를 치료해낸 것이다. 누워있는 환자 모습만 보고서, 中風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조선의 의사인 『輕寶新編』의 저자가 던지고 있다. 특히 이 꼭지에서는 ‘누워서 대소변을 본다’는 뜻의 漢文 문장이 ‘臥見大小便’, ‘팔다리를 쓸 수 없다’는 뜻의 漢文이 ‘四肢不用’으로 나오는데, 『輕寶新編』의 저자가 구사하는 漢文은 우리말 어법과 오히려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와 가까운 근래의 조선 의사의 경험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다.

부-13 어떤 여인이 담두통으로 가미육군

자탕 10첩을 복용하니 병이 나왔다. 반 년 뒤 다시 두통, 복통 등 전신 상하 안팎이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육군자탕을 증에 따라 가감한 약 20첩을 쓰고 병이 나왔다. 또 반 년 뒤 재발하여 전신을 돌아다니는 통증에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다. 육군자탕을 증에 따라 가감한 약 50첩을 썼더니 두통이 때로 내려가서 죽통이 되거나 때로 위로 올라가 복통이 되고, 구구와 백체로 왔다갔다 옮겨 다녔는데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없었다. 본방에 호삼 5푼을 추가한 약 20여 첩을 복용하였더니 (상당히 나았으나) 3달 후 다시 발병하여 다시 호삼 1냥을 본방이 넣어 복용하였더니 쾌차하였다.

대저 담통 환자는 원래 비위가 허하여 담이 많이 생긴다. 약을 쓸 때 비록 담이 삭아 병이 나왔어도 비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담병이 또 생긴다. 담병이 쌓이고 위중한 경우 인삼 황기로 비위를 보하지 않으면 담병은 끝내 낫지 않는다.<sup>18)</sup>

부-6 어떤 처녀가 장항에 와서 머물렀는데 어느 날 저녁 담이 목구멍에 걸리고 흉증을 막아 소함향으로 구급 처치를 했더니 그 뒤 매 저녁마다 담연이 역상하였다. 어느 날 저녁 목구멍에서 킁킁 소리가 나고, 손발을 마구 휘두르며, 이목구비와 입술 열갈이 모두 실룩거리며, 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사람을 몰라보고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지나자 미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며 동작이 광망하였다. 다른 의사가 묵은

회증이라고 보고 회충 치료약을 쓰려 했으나, 내가 홀로 육군자탕에 화 기운을 내리고 기를 돌리는 약을 더한 약방 30첩을 써서 병이 나왔다.

이 병은 흑자는 회병이라 하고 흑자는 간질이라 했으나 그 괴이하고 황당하기 막측한 증상이나, 저녁 무렵에 더욱 위중해지는 증상을 보면 필연코 담증이였다.<sup>19)</sup>

남-16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중풍이 들었는데 누워서 대소변을 보며, 사지를 못 쓰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상세히 물어보니, 처음 병이 났을 때는 갑작스런 증세는 없었고 다만 약간 통증이 있던 것이 점점 중증이 되어 갔음을 알았다.

내가 “담이 심포로 들어간 것” 이라 하고, 가미복령탕을 썼다. 10첩을 복용하니 지각이 점차 생기면서 사지가 조금씩 움직였고, 대소변과 언어도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병이 나왔다.

무릇 병이란 직접 가서 환자의 증세를 살필 수도 없고, 진맥 또한 무작정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환자 가족이) 와서 증상을 전하는 말이나 (내가) 증세를 물어보는 사이에 반드시 세밀하게 살펴야 할 일이다.<sup>20)</sup>

### 3) 虛實 鑑別과 치료 순서

『輕實新編』에서 의사의 진료는 환자의 虛實, 邪

18) 원문이미지 8/80면 “一女人 以痰頭痛 服加味六君子湯 十貼而差 半年後 復發頭痛 腹痛 全身上下內外 無處不痛 六君子湯 隨症加減 二十貼而愈 又半年 復發 流注全身無處不痛 六君子湯 隨症加減 用五十餘服 頭痛 或下爲足痛 或上爲背腹痛 九竅百體 悠往悠來 痛無分效 本方 入胡蔘 五分 二十餘服而 三朔後 復發 又用胡蔘 一兩 入本方 服之 而快差 大抵 痰痛之人 元來脾胃虛 痰多生矣 用藥 雖痰消病愈 脾胃未復 故痰病復生 痰病積重之時 非蔘芪補脾胃 則痰病終不能差矣”

19) 원문이미지 5/80면 “一室女 來留療鄉 一夕 痰妨喉 痰壅胸中 以蘇合丸救急 則其後每夕 痰涎逆上矣 一夕喉中噫嘻 手足亂動 耳目口鼻唇面 皆謂動 吐不收 不知人 不能言矣 移時狂言 譫語 動作狂妄 他醫以爲老蛔 欲用治蛔之藥 予獨以六君子湯 加降火之行氣之材 三十貼而差 此病 或以謂蛔 或以謂癩 然其怪幻莫測之症 乘昏添重之狀 必痰也”

20) 원문이미지 33/80면 “一人 來言 其老父中風 臥見便尿 四肢不用 不能言語 詳問 則得病之初 無擊什之患 而只因微痛 漸成重症 予曰 痰入心包 用加味茯苓湯 十貼服 知覺漸生 四肢稍運 便尿言語 次次復常 而愈 凡病既不得躬往察症 診脈則不可徒信 來傳之言 問症之節 必詳審”

氣의 虛實을 감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對症治療가 아니라 全一의 觀點의 치료를 위한 기본 전제이다.

소-6에는 재미있는 대화가 나온다. 아픈 아이의 아버지는 의학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는 純陽之體라는 것도 알고, 설사병에 辰砂益元散(활석6, 감초1, 진사1의 비율로 구성)을 써서 치료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辰砂가 아니라 乾薑이 추가되는 溫六散(滑石6, 甘草1, 乾薑1의 비율로 구성)으로 아이의 설사병을 치료했다. 올해는 이전과 아이의 虛實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소아의 脾胃가 쇠잔해졌을 수도 있고, 기후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 환자 측에서도 의학이론을 아는 이가 있어 담당 의사와 격조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다.

남-7은 좀 더 세밀하다. 편도염이나 인후염에 해당하는 會厭症은 남녀에 따라 허실의 판단이 달라진다. 부인에게는 實症에 비해 약간 虛症인데 반해, 남자에게는 약간 虛症에 비해서 극심한 虛症이라고 한다. 이런 판단은 허실 감별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輕寶新編』 저자의 독특한 임상 견해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부-26은 한결 더 복잡하다. 產後惡露症에 元氣虛弱을 겸한 경우 瀉法과 補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하는 어려운 문제다. 이것은 사실 정답이 없다. 순전히 그 환자의 임상적 증세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저자는 補虛湯에 四物湯加減으로 먼저 보하고 나중에 瘀血 치료를 했지만, 血痛이 확실히 존재하는 환자였으면 마땅히 瘀血을 몰아낸 다음 신속히 인삼이 든 강력한 보약으로 다스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한의학 치료의 妙處를 드러낸 부분이다.

소-6 어떤 어린 아이가 봄 여름 4~5개월 동안 설사를 하였는데, 주인이 의술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 진사익원산을 쓰려고 하였다. 내가 온록산을 쓰기를 권하여 아이의 병이 나았다. 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큰아이[長男]가 어릴 때 1년 동안 설사를 했는데, 백약이 무효였지요. 어떤

의사가 ‘어린이는 순양입니다.’ 고 하면서 진사익원산을 쓰고 꽤 차했지요. 지금 이 아이의 설사는 오뉴월에 생긴 것인데 건강을 복용하고 나온 것은 어떤 이치입니까?” 하였다. 내가 말했다. “허실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21)

남-7 어떤 남자가 회염을 앓았는데, 혀에는 다만 붉은 색이 보이고 인후는 아프지 않고 열 기운도 없고 두통도 없었다. 음식과 언어는 무방하였고 다만 책을 읽을 때 목이 쉬어 읽지 못했다. 일찍이 가미사물탕 30첩을 썼지만 효과가 없이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내가 청금강화단 1제를 쓰자 병이 나았다.

앞에서 나온 부인의 회염증은 실증에 비하자면 조금 허증이므로 가미사물탕을 쓰자 즉효하였다.

대체로 남자의 회염증은 약간 허증에 비하자면 진짜 허증이므로 사물탕으로는 효과가 없고 청금강화단으로 효과를 얻었다. 무릇 병은 허실을 반드시 정교하게 살펴야 한다. 22)

부-26 어떤 부인이 산후 오로가 내려오지 않았고 머리가 약간 아팠으며 양 다리도 약간 아팠는데, 밥과 국을 먹지 못해 원기 허약이 극심했다. 우선 보허탕 1첩을 쓰니 머리와 다리의 통증이 멎고 허약증이 조금 나아졌지만, 하복부 왼쪽 말단에서 동

21) 원문이미지 26/80면 “一小兒 春夏四五朔 泄瀉 主人亦知醫理 欲用辰砂益元散 予勸用溫六散而愈 主人曰 “長男兒時 基年泄瀉 百藥無效 一醫曰 ‘小兒純陽 用辰砂益元散’ 而快差矣 今此之兒泄瀉 況當六月 服乾干而愈 何也?” 予曰 “虛失不同耳””

22) 원문이미지 29/80면 “一男子 亦患會厭 舌上只見紅見之端 咽喉不痛 無熱候 無頭痛 飲食言語無妨 但讀書則聲嘶 不能讀 曾用加味四物湯 三十貼 無效 而已經多年 予用清金降火丹 一劑而愈 上章婦人會厭 比宗症稍虛之症 故加味四物湯 即效 皆男子會厭 比稍虛真虛之症 故四物湯無效 而降火丹 取效 凡病 虛實必須詳察”

통이 위로 거슬러 올라오는 증세가 있었다. 사물탕에 도인, 홍화, 소목 각 1돈을 더한 것을 3번 복용하고 나왔다.

이 병은 마땅히 먼저 어혈을 몰아낸 후에 추가로 허증을 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허증이 있는 가운데 어혈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허증이 더욱 심해 질까봐 원칙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허탕을 권하여 허증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야 혈통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이 때 어혈을 몰아내어 병이 나왔다. 그렇지만 애초에는 혈통이 없고 허증이 심하였기 때문에 감히 먼저 보한 뒤 나중에 어혈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허증 가운데 혈통이 있었다면 마땅히 먼저 어혈을 몰아낸 다음에 급히 인삼이 든 처방으로 강하게 보해야 할 것이다.<sup>23)</sup>

#### 4) 氣藥과 上·下焦 동시 치료

『輕寶新編』 중에서도 특히 한의학의 근본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꼭지들이다. 대변이 막혔으면 대변을 잘 뚫어주는 약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便秘 치료약으로 안 되는 便秘가 있는 것이다. 소변이 막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鬱氣를 풀어주어야 대소변이 풀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氣로 이루어진 인체의 全一의 構造를 염두에 둔다면, 下焦의 막힘은 上焦를 뚫어주어야 풀린다. 『歷試漫筆』에서 심장의 열로 상반신 열증이 심한 경우 소변을 빼내는 치료를 하면서, “연적의 윗구멍을 열어주면 곧 아래가 통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 연상된다.<sup>24)</sup> 항문이 빠진다고 항문에 작용

하는 瀉腸藥을 쓰면 氣는 더욱 막히고 항문은 더욱 빠지고 小便淋瀝는 더욱 심해질 뿐이다. 氣는 온몸에 편재하는 것으로,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전체적 해결을 추구한다. 한의학의 本領이요, 사라지지 않을 근원적 命題로 볼 만하다. 부-14, 남-14, 남-44은 마치 하나의 病機를 설명하는 세 톱니바퀴처럼 그 사례가 명백한 의안들이다. 『輕寶新編』의 가장 뛰어난 의안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부-14 어떤 부인이 변비가 오래 되었는데 여러 약이 효과가 없었다. 내가 길경지 각탕(처방은 흉문에 보임) 3첩을 복용하고 병이 나왔다.

그 후 한 사람이 대변이 막히었는데 다른 약을 효과가 없어 다시 앞의 약을 썼더니 병이 나왔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기병을 동반한 경우[挾氣之人]이므로 기를 뚫어주자 병이 나왔다.<sup>25)</sup>

남-14 어떤 사람이 막 감기에서 나왔는데 다시 바람에 중감이 되어 소변이 막혔었다. 팔정산은 효과가 없고, 우공산을 2회 썼더니 소변은 통하였는데 전신에 번열이 났다. 다시 도씨보중익기탕을 쓰니 소변이 시원하게 통하고 열이 물러났다.(중감이 된 사실은 가장 늦게 들었으므로 이제야 도씨보중익기탕을 썼다.)

이 세 사람(부-14 포함)은 모두 울기가 있었는데, 단지 하초약만 쓰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먼저 상초의 기를 돌리자 하초의 달힌 기운이 열렸다.<sup>26)</sup>

로 정신이 혼미하고 목구멍에 열이 뭉친 것은 심장의 열 때문이라고 하여 연적 윗구멍을 열어주듯이 오줌을 빼내면 열을 식힐 수 있다고 하였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 필: 조선어의 이수구의 동의보감 실천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301-305.)

23) 원문이미지 14/80면 “一婦人 産後惡露不下 頭部微疼 兩脚微疼 飯羹不進 元氣虛劇 先用補虛湯 一貼 頭脚痛止 虛症稍蘇 而自下腹左邊末端 有逆上疼痛之症 四物湯 加桃仁 紅花 蘇木 各一錢 三服而愈 此病 宜先逐瘀 然後 加以補虛 而恐虛中逐瘀 虛症添劇 則不可救療 故勸用補虛蕩 虛回而血痛始作 故逐瘀而愈 然初無血痛 而虛症甚 故乃敢先補虛 後逐瘀 若虛中有血痛 則宜先逐瘀 然後急用參劑而後補矣”

24) Case 58 봄에 배를 타다가 추위와 습기에 감수된 윤순홍 부인의 상한병을 치료하면서 한 말로서, 상반신 열증이

25) 원문이미지 8/80면 “一婦人 大便秘 諸藥不效 予用 吉更只角湯(方見胸門) 三服而愈 其後一人 大便秘 他藥不效 又用 右藥而愈 此二人 皆挾氣之人 故通而愈”

26) 원문이미지 33/80면 “一人 感氣新差 重感風而小便閉 八正散 不效 用禹貢散(方見回春) 二服 小便通 而全身煩熱

남-44 어떤 사람이 소변이 매우 짙고 대변이 막히고 하복부가 은근히 아파서 팔정산 2첩을 복용했다니 소변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 짙고 대변은 조금 보았지만 매우 딱딱하였다. 소변을 보려하면 항문이 빠지고 대소변이 모두 비삽하였다. 익원산 2돈, 목향, 빈랑, 회향 볶은 것 각 1돈을 가루내어 끓인 물에 타서 4첩을 복용하니 항문이 빠지지 않고 대소변도 조금 통하였다. 다시 2첩을 더 쓰자 병이 나았다.

이 병은 열이 멎어 입증이 되고 기가 하초에 응체된 때문인데 팔정산으로 열은 조금 풀렸지만 기가 통하지 않아 항문이 빠진 것이다. 이럴 때 삼장약을 쓰면 기는 더욱 막히고 항문은 더욱 빠지고 입증은 더욱 심해질 뿐이다.

이에 익원산으로 열을 식히고 빈랑, 목향으로 기를 돌리고, 회향으로 하초를 따뜻하게 보함으로써 (팔정산에 포함된) 대황이 허증을 타고 냉기를 꺼친 것을 구해주었다.<sup>27)</sup>

### 5) 病機 해석과 名醫 경쟁

醫案에서 환자를 놓고 다른 의사와 진단, 처방을 다투는 모습은 심심찮게 나온다. 이런 현상이 『輕寶新編』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다. 부-11은 腹脹症인데, 복창증은 대체로 險症이다. 배에 배꼽이 매몰되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어있다. 中脘 부위의瘡이 원인이라고 바로 積證(執證)하고, 위속에 가로막힌 음식물이 빌미라면서 地角挫散을 1회 복용하니

5개월 전에 먹은 호박나물이 빠져나왔다. 빠져나왔으면 바로 보하는 약을 먹어야 할진대, 다른 의사가 平胃散 계열의 깎아내리는 약을 쓰니 곧바로 환자가 탈진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오랜 사투 끝에 살 길이 열렸다고 봤는데, 한 순간의 착오가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다. 남-42는 房勞 후 臥病한 경우인데, 이런 상황은 보통 女色過度로 오는 腎臟의 병으로 보는데 반해 저자는 痰病으로 치료했다. 痰이 본디 병의 바탕이 있었으며 房勞傷은 거기에 새로 추가된 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환자는 저자가 미답지 못했는지, 따로 名醫를 찾아 본인이 가진 疑懼心을 풀려했는데, 그 명의로부터 ‘巧而得中’이라는 인정을 얻었다. 명의를 보기에 이 병은 痰病으로 정확하게 執證했다는 말이다. 병이라는 것이 현재 드러난 증상이 다는 아닐 것이며 중첩, 축적, 변화해 가는 과정을 동시적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남-17은 疔소 울화병이 있던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어 위급한 지경에 빠졌다. 본디 울화병은 드러난 증상이 다양한데, 寒熱로 정반대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 의사들이 곤혹스러운 지경이다. 『歷試漫筆』과 같이 다른 의사와 환자의 증상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元氣가 衰敗하고 頭痛, 腹脇痛, 驚悸怔忡, 妄想에 이어 全身이 차가워지며 冷汗이 흘렀다. 이 정도면 마지막 방법으로 人蔘과 附子를 대량으로 쓰는 것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어떤 의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저자는 鬱滯된 火가 근본 원인임을 주장하고 나섰으니, 『輕寶新編』의 안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케이스 중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환자를 놓고 다른 의사와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는 모습까지를 포함하여 『輕寶新編』의 醫案의 사실적 특징으로 알리고자 한다.

又用陶氏補益湯 則小便大通 而熱退 (最晚聞知重感 故用氣湯) 此三人 皆有鬱氣 只用下焦藥而無效 故先行上焦氣 而通下焦閉 (二人 見上婦人門 大便久秘條)

27) 원문이미지 44/80면 “一人 小便極澀 大便不通 下腹微痛 用八正散 二貼 小便稍愈而猶澀 大便小見而甚秘 欲見小便 則肛門大脫 二使秘澀 益元散二錢 木香 檳榔 回香炒 各一錢 爲末 白湯 占服 四貼 肛門不脫 二便稍通 更用二貼而愈 此病 熱結成淋 氣滯下焦 故八正散 熱稍解 而氣不通 茲以 脫肛 若用瀉腸之劑 氣愈秘 而肛愈脫 淋益甚 茲用益元散 清熱 檳榔 木香 行氣 回香 溫補下焦 以救大黃之升虛遺冷”

부-11 어떤 부인이 복창증을 앓았는데 모든 약이 효과가 없었다. 내가 보니 그 배 위에 배꼽에 없었는데, 이것은 곧 증완 부위에 창이 있고 이것은 위 속에 가로막힌 음식물이 있다는 증거였다. 지각좌산(처방

은 창문에 보임)을 1회 복용하였더니 배가 몹시 아팠고 야반 후에 설사를 하면서 호박나물이 빠져나왔다. 5개월 전에 먹은 것이었다.<sup>28)</sup> 어떤 명의가 이어서 나물을 삭이는 약에 가미평위산 2첩을 추가하여 주었는데 원기가 탈진되고 혀를 빼물고 죽었다.

이 병은 나물이 적체된 것을 빼낸 뒤에 마땅히 강력하게 보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더욱 삭여 내리는 약을 쓴 셈이다. 이런 경우가 이른바 “어리석은 자가 한 번 이득, 똑똑한 자가 한 번 실패” 라는 것이리라.<sup>29)</sup>

남-42 어떤 젊은이가 방로 후 몹시 아파 죽을 지경인데 밤새 갈증이 좀 나더니 이어 자리에 누웠다. 그 증세를 들어보니 담병이었다. 담약을 쓰니 회복되었다. 2~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병하면 또 이렇게 치료했다.

환자는 스스로 여색에서 온 병인데 담병으로 잘못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어떤 명의(名醫)를 찾아가 물었다. 그 명의가 말하기를, “이것은 교묘하게도 딱 들어맞았소.” 하면서 약을 주지 않았다. 그 후 병은 쾌차하였다. 이 병은 본래 담증인데 때로 방로상이 추가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담약을 많이 쓴 뒤 다시 아프지 않았다.<sup>30)</sup>

남-17 어떤 사람이 율화로 병을 얻어 원기가 쇠패하고 복통, 협통, 두통이 있고, 오한과 발열이 때에 따라 일어났다. 혹은 정충, 경계가 있기도 하고, 혹은 피로하기도 하여 점점 망상이 생기고 근심과 분노가 잇따라 보이고 손톱이 위로 들렸는데, 모든 약이 효과가 없었다. 몹시 말단과 입, 코의 기가 모두 차가웠으며 혀에는 차가운 침이 흘러내렸지만, 흉복에는 번들증이 있어 구미혈 부위에 침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다. 점점 조동증이 심해지고 차차 오한이 들면서 결국 전신이 모두 차가워지고 입과 코의 기운이 차가워지고 전신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진기가 다했고 음기만 홀로 남았으니 인삼과 부자를 대량 쓰는 방법뿐이오.”

내가 말하기를,

“화가 울체된 것이 밖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오.”<sup>31)</sup>

가미육울탕 10첩을 썼더니 큰 증상은 모두 사라지고 협통만 조금 남았는데, 청간탕 10여 첩을 복용하고 나았다.<sup>32)</sup>

次 如右發作 如右治療 病人自疑色疾 誤治痰治 往問一名醫 醫曰 此巧而得中 因不藥 其後快差 此病本以痰症 時或添傷 於房勞而發也 故多用藥痰消後不復痛”

28) 몇 개월 동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토하거나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도 공통적 소재다. 감과 쌀밥이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 나온 경우도 있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팔: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156-161.)

29) 원문이미지 7/80면 “一婦人 脹症 諸藥不效 予視其腹上無臍 知其只腹中脹之分 必有胃中滯隔之物 用枳角剉散(方見眼門) 一服 腹大痛 半夜後 大便泄下 胡朴菜 卽出 五朔前所食也 一名醫 繼進菜稍藥 加味平胃散(方見積聚) 二貼 元氣奪盡 吐舌不收而逝 此病 下菜積後 當用峻補之劑 而反益消下 此所謂 愚者一日 智者一失也”

30) 원문이미지 43/80면 “一少年 房勞後 大痛垂死 經夜稍渴 而因委席 聞其症 則乃痰病也 用痰藥而蘇復 二三年來 每一

31) 이것은 중요한 장면이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분명히 허한증으로 볼만한데, 병의 근본원인인 율증에서 과생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歷試漫筆』에서도 다른 의사와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저 환자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잔 약을 쓰겠소.” 하면서 극력 경쟁하는 장면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신동원 외 3인, 역시만팔: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pp.458-459.)

32) 원문이미지 34/80면 “一人 因盃火 得病 元氣積敗 腹脇頭痛 時寒時熱 或怔忡驚悸 或勞 漸妄想憂怒 瓜甲浮起 諸藥不效 而末梢口鼻之氣 皆冷 舌冷涎凝 胸腹煩鬱 則鳩尾之分痛如刺針 漸益躁動 稍稍惡寒 因以全身皆冷 口鼻氣冷 全身冷汗 醫云 “真竭盡 陰氣獨存 大用參附爲計.” 予曰 “火鬱而不能發暢也.” 用加味六鬱湯 十貼 大症皆散 而脇痛餘症 服清肝湯 十餘貼而愈”

## 6) 본인의 질병

저자는 울화로 생긴 耳聾症에 대해 병기를 숙고해 보니, 노한 기운이 膽經을 따라 올라가면서 허약한 곳에 유입된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심한 腰痛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결했다. 본디 脾胃가 허약하여 죽과 미음으로 여러 해를 살아온 저자는 담백한 나물 음식으로 비위를 조절하여 脾濕을 없애주니 腎臟을 억누르는 水濕이 제거되어 요통이 사그라졌다. 이렇듯 몸의 현상을 하나하나 해석해내는 방식이 환자든 본인이든 일관된 틀을 따르고 있고 그에 맞추어 정교하게 적용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남-47 내가 울화로 오른 귀가 심하게 멀었는데, 몇 개월 뒤 약을 안 쓰고도 울증을 풀어나고 쌓인 마음을 활짝 열었더니 병의 원인이 제거되면서 쾌차하였다.

처음엔 노기를 참은 것 때문에 오른 귀가 멀었나 했는데, 여러 번 생각해 보니 내가 원래 원기가 허약하므로 족소양의 화가 경을 따라 가다가 기분 중 평소 허약한 곳에 유입되므로 오른 귀가 먼 것이다. 이에 병의 치료는 물론 그 원인을 잘 살피는데 달려 있지만, 또한 환자의 허실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았다.<sup>33)</sup>

남-48 내가 비장이 허약하고 수토에 상하여 도포증과 쉽게 배고픈 증을 수삼 년 앓고 죽과 미음으로 수삼 년, 무른 밥과 마시는 것으로만 육칠 년을 지냈다. 그 사이 요통이 점점 심해졌는데 비위가 허약한 이유로 요통약을 감히 복용하지 못하고, 다만 비위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담백한 나물 음식을 위주로 했더니 쉽게 배고픈 증이 나아지면서 요통까지 의외로 좋아졌다.

매저 이전에는 비장의 습 기운이 아래로 흘러내려 신장의 수 기운을 억눌러 요통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비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여 습 기운이 더 이상 신장을 손상하지 않으므로 요통이 나아진 것이다.<sup>34)</sup>

## 7) 독특한 처방

『輕寶新編』醫案 속에서 쓰인 처방으로 鷄膏와 益本滋腎丸은 주의를 끈다. 3개의 의안(부-25, 부-44, 노-7)에서 鷄膏(또는 黃土鷄膏)가 쓰였고, 4개의 사례(남-4, 남-11, 남-61, 미-3)에서 益本滋腎丸이 사용되었다.

### 가) 鷄膏

鷄膏는 『濟衆新編』에서 ‘新增’이라 하여 기존 처방에 없던 것을 새로 증보한 내용으로 인삼을 代用하는 약이라고 했다. 代用의 이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삼을 얻기 어렵거나, 또는 血熱이나 肺火로 인해 인삼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기 마땅치 않은 경우이다. 『濟衆新編』에 새로 채록된 처방이 『輕寶新編』에서는 인삼을 대용해야할 실제 상황에서 활용된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濟衆新編』 이후 의서 『廣濟秘笈』에서도 鷄膏의 용례가 보인다. 이렇듯 鷄膏는 한 의학이 문헌과 실행이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 진전을 보이는 하나의 입증사례로 보면 어떨까 한다.

제고. 신증. 인삼을 얻기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는 이것으로 대용한다. 인삼을 얻을 형편이 되어도, 원래 혈이 조열하거나 폐경에 화가 있어 인삼이 들어간 약을 복용키 어려운 사람에게도 좋다.(후략) <sup>35)</sup>

33) 원문이미지 45/80면 “一予以鬱火 右耳聾甚 數月後 不藥而宣鬱開懷 釋去病源而快差 初疑忍怒 右耳聾矣 反復思之 予元氣素虛弱 故足少陽之火 循紅(經)入氣分素虛處 而聾右耳也 是知治病難係於審其病源而止 亦在於察人虛實故也”

34) 원문이미지 46/80면 “一予以脾虛 重傷水土 倒飽易飢 數三年 粥飲支保 數三年 軟飯水飲 而六七年 間腰痛甚 坐於脾胃但虛 不敢服腰痛藥 只爲調脾胃之道 則飲淡稍勝 易飽稍愈 而腰痛意外向差 蓋向來脾濕下流 于腎間克水 而腰痛矣 近來脾臟要位 濕土不復傷 故腰痛向差耳”

35) 한국의 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18. 濟衆新編. [cited at 2017 Jan 12] Available from: URL: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none> “鷄膏 新增 貧家難辦參料 以此代用 雖能辦參 素稟血燥 肺經有火 難服參料者 亦宜 陳雌雞一隻 去筋膜皮骨 及頸與脊 只取肩脚及腹下堅肉 入生桔梗一條 生薑二兩 官桂五錢 山查二十箇 乾栗十箇 如法作膏 血燥 加白芍藥酒

(溫疫) 6~7일이 지나도 땀이 그치지 않고 15~20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계고(鷄膏)를 써서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독삼탕을 써서 나온 경우도 있다.<sup>36)</sup>

이처럼 虛勞와 傷寒, 溫疫 등에 鷄膏는 獨蓼湯의 대체용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이다.

부-44 어떤 여인이 나이 70여 세에 양일학을 앓아, 사물육군자탕 4첩을 써 쾌유하였다. 매첩에 인삼 1돈을 넣었다. 또 계고(鷄膏)에 반하 7돈을 넣어 썼더니 병이 나았다.<sup>37)</sup>

#### 나) 익본자신환

益本滋腎丸은 『東醫寶鑑』 眼門에 나오는 眼疾 처방약이며, 知母와 黃柏 두 가지로 된 약이다.<sup>38)</sup> 그런데 『輕寶新編』에서는 眼疾에서 뿐만 아니라 精滑, 下焦冷의 경우에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본래 治方 범위를 넘어서 자유롭게 그 응용영역을 탐색하고 확장해 나가는 모험과 상상력의 한의학의 본질적 특색을 益本滋腎丸이 보여주고 있다. 腎臟과 눈의 상관관계 또한 물 속의 불(坎卦)과 불 속의 물(離卦)의 결합처럼 긴밀한 것으로도 이들의 한의학적 상호작용을 짚어 낼 수 있을 것이다.

炒黃二錢 陽虛 加附子一錢 氣虛感傷 或房勞挾感 補瀉兩難 忍冬三錢或五錢 生薑一兩 山查十箇 生栗九箇 生桔梗一條 大抵 加減惟在活法”

36)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廣濟秘笈. [cited at 2017 January 12] Available from: URL: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15\\_Z\\_001&DataName=%E9%9B%9C%E7%97%85&id=KIOM\\_A015\\_4\\_005\\_0001](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15_Z_001&DataName=%E9%9B%9C%E7%97%85&id=KIOM_A015_4_005_0001). (“溫疫) 六七日汗不解 延至望念 有用鷄膏而效者, 或用獨蓼湯而愈”

37) 원문이미지 23/80면 “一女人 年七十餘 兩日癩 用四物六君子湯 四貼 而快愈者 每貼 入蓼一錢 又鷄膏 入半夏 七錢而愈”

38)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범인문화사. 서울. 1999. p550. “益本滋腎丸 治黑睛生翳膜 或陰虛睛散大 黃柏 知母並酒洗炒各等分 右爲末 滴水和丸梧子大 空心鹽湯下五七十丸 東垣”

남-4 어떤 고을 원님[래수]이 하체에 차가운 땀이 나서 옷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다. 여기에 더하여 음력 6월에 임질까지 얻었다. 익본자신환 1제를 쓰니 두 가지 병증이 모두 나았다.

이 병은 습열이 응체되어 기가 흐르는 길에 막힌 때문인데 하체가 차가운 것은 진짜 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증인 것이다.<sup>39)</sup>

### III. 결 론

이상 조선 후기 필자 미상의 醫案 『輕寶新編』에 대하여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기존의 의안인 『歷試漫筆』, 『醫門寶鑑』, 『愚岑雜著』, 『吞吐集』 등과 함께 19세기의 조선 의사의 임상 실체에 대한 추가적 자료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輕寶新編』의 의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질병 진단과 처방에 대해 『東醫寶鑑』의 病門 편제를 비교적 정확히 따르고 있다. 둘째, 병의 치료는 원인의 제거와 함께, 환자의 虛實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치료에서 치료 후 질병의 과정을 復記하면서 전체 평을 요약적으로 내리는데 특히 복잡 병증에서 先後와 輕重을 가려 치료하는 원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 지침이 되는 의학 원칙에 투철하면서도 현장 활용에 요긴한 빛나는 임상警句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정밀한 가감과 교대처방을 하는 저자는 “처방에 약재를 加減하는 이유로 藥力을 專一하게 하고 藥效를 빨리 보고자 함(남-8)”이라 하였고, 氣藥을 중시한 이유는 “氣가 능히 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氣能生血] 그리 한 것(남-40)”이었다. 상당수의 질병은 痰에 근본이 있는 것이고 痰은 中焦의 허약에 원인이 있다면서, “大抵痰痛之人 元來脾胃虛 痰多生矣(부-13)”라고 했고,

39) 원문이미지 29/80면 “一太守 下部冷汗衣濕 六月兼得淋疾 益本滋腎丸 一劑 兩症俱愈 此病濕熱凝滯 氣道俱塞而下部冷 非眞冷 案爲熱症也(方見眼門)”

추가로 “무릇 痰은 中焦에 잠복해 있고, 病은 上焦 下焦에 발생한다.”하였다. 치료 전략으로 제안하기를, “中焦의 虛症을 치료하면 下焦의 輕症이 먼저 낫고, 上焦의 重症이 반쯤 낫는다.(남-45)”고 본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痰病이 쌓이고 위중한 경우 人蔘 黃芪로 脾胃를 보하지 않으면 痰病은 끝내 낫지 않는다.(부-13)”고 끝까지 근원치료를 당부했다.

한국의 전통에 익숙한, 지역적 사정이 배어 있는 표현도 상당하다. “무릇 服藥의 道는 약 먹는 때를 어길지언정 밥 먹는 때는 놓쳐서는 안 된다(남-26 凡服藥之道 寧藥違其時 食不可以失時)”는 표현은 한국적 임상 실체에 피부에 와 닿는 표현으로 흥미를 끈다. 東武 李濟馬도 밥 먹은 뒤에 먹는 약과 이전에 먹는 약을 매우 상세히 구분하여 밥 기운과 약 기운의 상보적 작용을 피했었다.

마지막으로 『輕寶新編』은 한의학의 운용 측면에서 볼 때, 몸이라는 一氣의 큰 그림 속에 전체적 全一觀에 근거하여 치료한다는 또 하나의 典範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런 사례의 축적은 한의학의 본질적 의의를 밝히는 근거 자료로서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의학은 대증치료의 한 극단적 對照點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앞서 예를 든 선행 의안 『歷試漫筆』에도 “風病에 風藥을 쓰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할 정도로 대증치료의警戒와 전일치료의 宣揚은 조선의학에서 굳건한 전통이다. 일상의 임상에서 對症治療를 폐할 수는 없으나, 對症治療를 넘어선 全一治療의 지향은 한의학의 眞面目이요, 유구한 전통과 실천을 두루 갖춘 고귀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 전통의 전수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곧 텍스트로 된 의서만으로는 한의학의 본질적 부분으로서의 全一治療의 중요성과 그에 기반한 임상실천의 전체 과정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임상으로서 실제 환자를 마주하며 환자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증상 執證, 方藥 선택,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 등을 시간상으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대증치료의 근본적 문제점을 적시하거나 전일적 관점의 치료 과정을 습득하고 후속 세대에 전달하기란 매우 어려울 터이다. 조선 의사가 기록한

『輕寶新編』 같은 의안의 가치는 이러한 한의학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 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한국과학문명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0-AMZ-2101)

## References

1. Shin DW, et al.. Yöksimanpil : Practical use of Donuibogam by Yi Sugui Royal Doctor of Joseon Dynasty. Paju. Dulnyouk publisher. 2015.  
신동원 외 3인. 역시만필: 조선어의 이수귀의 동의보감 실전기. 파주. 도서출판 들녘. 2015.
2. Jang TG. Woojam-Mango · Woojam-Japjeo.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10.  
장태경. 국역 우잠만고 · 우잠잡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3. Kim SG ed.. Hankukuihakdaegye(18). Seoul. Ryeogang Publisher. 1994.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18). 서울. 여강출판사. 1994.
4. Heo J original work. Translation Committee Edition. Classical Chinese-Korean translation Donguibogam. Beobinmunhwasa. Seoul. 1999.  
허준 저. 동의보감번역위원회 編. 대역동의보감. 법인문화사. 서울. 1999.
5. Lee SA. Medical Records of Eun Suryong at Gochang province in the 19th Century. J. Korean Medical History. 2005. 18(2).  
이선아. 19세기 고창지방 의원 은수룡이 남긴 경험의안. 한국의사학회지. 18(2).
6. Ha GT, et al.. A Study on the Medical

- Records of Euimunhogam.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0. 13(1).  
 하기태 외 3인. 의문보감에 수록된 주명신 의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 2000.
7. Yi KB.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Korean Medicine Viewed through Medical Case Writings -Attitudes toward Medical Knowledge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Medicine. Journal of the Korean History of Science Society. 2012. 34.  
 이기복. 의안(醫案)으로 살펴보는 조선후기의 의학 : 실행과정에서 보이는 의학지식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012. 34.
8. Yi KB. Yi Suki's Yöksimanpil and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a Chung'in Medical Official in Eighteenth Century Chosŏ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3. 22(2).  
 이기복. 18세기 의관 이수기(李壽祺)의 자기인식. 의사학. 2013. 22(2).
9. Yi GM. The Lives and Diseases of Femal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as Reconstructed with Cases in Yeoksi Manpil (Stray Notes with Experienced Test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5. 24(2).  
 이꽃메. 역시만필의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후기 여성의 삶과 질병. 의사학. 2015. 24(2).
10. Oh CK. The Cold Damage Medicine in 17th and 18th Century Korea: Comparison through the Medical Records of China, Japan and Korea. Historia Scientiarum. 2014. 24(1).  
 오재근. 중국, 일본, 한국의 의안 비교를 통해 살펴본 17~18세기 한국의 상한의학. 일본과학사학회. 2014. 24(1).
11.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cited at 2017 Jan 5] Available from : URL :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07\\_Z\\_001&DataName=%E8%BC%95%E5%AF%B6%E6%96%B0%E7%B7%A8&id=KIOM\\_A007\\_4\\_001\\_0002&HLWORD=%E8%BC%95%E5%AF%B6%E6%96%B0%E7%B7%A8](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ViewOld.jsp?srchTab=1&ssot=&DataID=KIOM_A007_Z_001&DataName=%E8%BC%95%E5%AF%B6%E6%96%B0%E7%B7%A8&id=KIOM_A007_4_001_0002&HLWORD=%E8%BC%95%E5%AF%B6%E6%96%B0%E7%B7%A8).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12. KOREAN DATABASE. [cited at 2017 Jan 12] Available from : URL : <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98&tabNodeId=NODE03872764&nodeId=NODE03872872#none>.  
 한국의 지식콘텐츠. 한국과학기술사자료대계 18.